

알몸 뒤풀이·밀가루 세레 “우린 NO” 흐뭇한 졸업식 구경 오실래요?

학부모 참석 편리하게 야간에 행사

전남대사대부고
국악·클래식 공연도

전남대학교 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교장 곽대훈)가 학부모들의 참석을 위해 야간 졸업식을 갖기로 해 눈길을 모으고 있다.

7일 사대부고에 따르면 9일 열리는 2010학년도 제32회 졸업식을 오후 6시부터 전남대학교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행사를 야간에 치르는 것은 직장 생활을 하는 학부모들이 자녀의 졸업식에 참석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다. 특히 졸업생들과 교사들은 식전 길거리 축하공연, 추억의 스크린, 나눔과 추억, 타임캡슐 봉인 및 전달, 희망의 등불 띄워 보내기 등 다채로운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기획, 참여했다.

곽대훈 교장과 졸업생들은 이날 무대에 올라 ‘꿈을 먹는 젊은이’를 합창하고, 졸업생과 3학년 담임교사는 ‘인생의 참 의미’를 함께 부른다. 졸업식에서는 국악과 클래식, 퓨전음악 등 공연도 펼쳐진다. 광주청소년 윈드오케스트라가 ‘올림피아 행진곡’을 연주하고 추정현 광주예술고 교사가 가야금 연주를 들려준다.

곽대훈 교장은 “졸업식을 학교의 성숙한 문화의식을 보여주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학교 문화를 선도하는 학교로 자리매김 하도록 총력을 쏟겠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졸업생 전원 가운 착용 자긍심 높여

순천효산고
송사 대신 축하공연

최근 중·고교의 ‘졸업식 탈선 뒤풀이’가 사회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행사를 통해 졸업식 문화를 크게 개선한 학교가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7일 순천효산고(이사장 조충훈)에 따르면 이 학교는 지난 2008년부터 졸업식을 각종 축하공연 및 행사로 대체하는 등 학생 중심의 행사로 진행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효산고는 졸업식장의 단상을 치우고, 교장과 교감 등 내빈이 졸업생들과 함께 앉는 등 졸업생 중심으로 행사를 치르고 있다. 또 틀에 박힌 송사 대신 축하공연을 마련하는 한편, 졸업생 모두에게 가운을 입힘으로써 졸업생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고 있다.

학부모와 급식실 및 매점 아주마들이 준비한 ‘영양편지’ 행사와 졸업생들이 만든 ‘타임캡슐’ 제작 등도 졸업식 문화 개선에 한 몫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효산고 유규주 교장은 “졸업은 끝이 아닌 또 하나의 시작을 준비하는 것으로, 학생들에게 보다 뜻깊은 졸업의 추억을 만들어 주기 위해 행사를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동부취재본부=김은종기자 ejkim@

오늘 날씨 해돋이 07시 26분 해질 18시 07분 달뜨기 09시 33분 달짐 22시 57분

부슬부슬 겨울비
흐리고 비가 온 후 오후 늦게 점차 그치겠다.

도시	최고/최저
광주	3/7°C
목포	4/7°C
여수	4/7°C
나주	2/7°C
완도	3/8°C
구례	0/8°C
해남	2/8°C
장흥	1/8°C
영광	4/8°C
진도	3/8°C
군산	1/6°C
남원	-1/6°C
옥산도	4/7°C

바다	방향	파고	체감지수	동파지수	뇌졸중지수
서해 남부 앞바다	동~남동	0.5~1.0m	관심	낮음	낮음
남해 서부 앞바다	남동~남	0.5~1.5m	관심	낮음	낮음
남해 서부 앞바다	북~북동	0.5~1.0m	관심	낮음	낮음
남해 서부 앞바다	북~북동	0.5~1.5m	관심	낮음	낮음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1.0~2.0m	관심	낮음	낮음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9(수)	10(목)	11(금)	12(토)	13(일)	14(월)
날씨	☀	☀	☀	☀	☀	☀
최저/최고	-1/8	-4/2	-5/0	-6/1	-5/3	-6/1



방학 끝... “숙제 해왔어요”
광주지역 초등학교가 대부분 개학을 한 7일, 광주시 광산구 수완동 큰별초등학교 2학년2반 학생들이 방학 동안 자신들이 해온 숙제들을 들어보이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교육청 사무관 승진 시험제→심사제 변경 “친정체제 강화용” 논란

광주교육청이 수년째 시행해온 ‘시험’ 방식의 사무관 승진 임용방법을 이른바 ‘심사제’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 제도를 시행하면 정실인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아주 높을데다 인사 대상자들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도 진행하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교육계 일각에서는 교육감 주변의 인사들의 상향수가 시험제를 통과해 승진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이 약하기 때문에 시험제를 심사제로 전환한 것이라는 주장마저 일고 있다.

광주교육청은 7일 기존 시험방식의 승진 임용방법을 일반승진제(심사제)로 바꾸기로 하고 8일 인사위원회에서 의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 교육청은 1986년 개청 이후 1999년까지 14년간 시험제를 고수하다가 2000년에 심사제로 전환해 3년 동안 시행했다. 하지만 2003년 다시 시험제를 적용하고 있다.

시험제는 승진의 객관성, 투명성 확보, 기본소양 함양 기회 등의 장점이 있는 반면 승진에 따른 잦은 이직(移席)으로 행정 공백 초래, 격무부서 기피, 실무검정 예로 등의 단점이 있다.

그러나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이른바 ‘심사제’는 시험부담을 더는 만큼 업무 전념과 격무부서 선호, 직무 중심능력 인제 선발이 가능하지만, 정실 인사 등 승진의 불공정과 불투명성 논란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심사제를 시행하는 일선 지자체 상당수에서 매관매직, 정실인사 등 인사비리의 주범이라는 오명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시 교육청 주변에선 “교육감이 평소 정실인사 폐해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도 정작 정실 개입 여지가 있는 인사제도를 택하는 것은 상식 밖”이라고 지적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겨울비 ... 목요일부터 추위·주말 영하 6도

광주 전남·북지역은 8일 겨울비가 내린 뒤 기온이 점차 내려가 주말에는 막바지 동장군(冬將軍)의 기세가 되살아날 전망이다.

광주지방기상청과 전주기상대는 “8일 광주와 전남·북 지역은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 흐리고 비가 내리겠다”며 “비는 아침에 남해안부터 시작돼 낮에는 전 지역으로 확대되겠다”고 7일 예보했다.

예상 강수량은 전남 남해안 5~10mm, 광주·전남·북 5mm 내외이며, 비는 오후 늦게부터 점차 그치겠다.

한편, 9일까지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다가 목요일인 10일부터 평년보다 낮은 기온을 보이겠다. 주말에는 광주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6도까지 떨어지는 등 다소 추울 것으로 예상된다.

/양승현기자 yang@kwangju.co.kr

정갑주 광주고법원장 정기인사 앞두고 사의

정갑주(57·사법시험 19회·사진) 광주고법원장이 이번 주 단행될 고위법관 정기 인사를 앞두고 용퇴의사를 밝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원장은 최근 사의를 표명하고, 광주시 동구 지산동 법원 인근 법조타운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불색 중이다. 정 원장은 후배들에게 길을 터주기 위해 용퇴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진 출신인 정 원장은 광주일보와 서울대를 졸업했으며 대법원 재판연구관, 광주고·지법 부장판사, 전주지법원장, 광주지법원장 등을 두루 거

쳤다.

현재까지 법원장급에서는 손용근(59·17회) 사법연수원장과 정갑주(57·20회) 서울서부지법원장 등이 사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번 인사를 앞두고 광주지법 김병하(54·25회) 부장판사와 김도근(39·36회) 판사, 순천지원 조재건(47·34회) 부장판사 등도 사의를 표명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대학생 4분의 1 “등록금 때문에 휴학”

대학생들은 4명 중 1명꼴로 등록금 때문에 휴학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7일 취업포털 ‘사람인’이 대학생 47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로는 등록금 마련을 위해 휴학을 생각하고 있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26.1%에 달했다.

이들은 휴학 기간으로 1년(69.1%)을 가장 많이 꼽았고, 한 학기(21.1%)나 2년(9.8%)간 휴학을 쉬겠다는 답변도 나왔다.

등록금을 마련하는 방법(복수응답)으로는 기업체 인턴(39%)과 장기간 아르바이트(32.5%), 아르바이트 2개 이상 병행(30.1%) 등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휴학을 계획한 대학생들은 학업이 미뤄지는 데 따른 부담감(56.9%)을 주로 걱정하고 있었다.

/연합뉴스

구제역 때문에 떠들썩한데, 정말 괜찮은걸까?

구제역 백신(예방접종)은 항생제가 아닙니다. 사람이 감기에예방접종을 하는 것과 같아서

인체에 전혀 해롭지 않습니다!

의학박사 오한진

이 는 의학적 상식이자 세계보건기구가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구제역은 인체에 무해합니다.

우리 축산물 안심하고 드십시오

- ▶ 구제역은 절대로 사람에게 전염되지 않습니다.
- ▶ 구제역에 걸린 가축은 시중에 유통되지 않습니다. (전부 매몰 처분)

*사람에게 전염되지 않는데 매몰처분하는 이유는 가축간의 전염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양돈자조금관리위원회 양돈자조금관리위원회 인우자조금관리위원회

구제역으로 국민여러분들께 불편과 염려를 끼쳐 대단히 죄송합니다